

나의 일터



(주) 대우
김 윤 선

약간의 병원근무경력을 가진 내가 이곳에 입사한지 어느새 1년을 넘기고 있다. 아직도 미숙한 점, 또 부끄러운 점들이 수두룩 한데 1년세월을 무의미 하게 보냈다고 되돌아 보게 되었으니 좁은 답답하기도 하다.

고등학교에서 더 앞을 내다 볼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암담함이란 뭘로 비유를 할까. 그런 와중에 주위에서 간호학원이라는 곳을 들먹이게 되고 해서 얼렁뚱땅 시작하게 된 것이 지금의 내가 된 것 같다. 아무런 계획없고 자포자기 상태에서 시작한 것이라 학원생활에서도 별다른 걸 느끼지 못했고 간호보조원이라는 명칭을 눌러 쓴 나는 병원 2년 6개월의 생활에서 배운것이라고는 크레졸 냄새에 익숙해지는 것과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차츰 내성적이고 어두운 얼굴로 변해가는 자신없는 내가 된 것 밖에는 별다른게 없다. 성격이 이렇게 빼뿔어지다가는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내인격이 의심스러워서 뭔가 다르게 이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을 찾기로 마음 먹었던 것이 벌써 의무실 1년 경력을 엮고 넘기게 했다. 아직까지도 나와는 달리 나름대로 병원근무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내 소중한 친구들이 축하해 주던

대우입사, 새로운생활, 인정받고 말리라는 그때의 나의 각오가 지금 생각하면 빙그레 웃음을 자아내게 만든다. 보건담당자라는 말은 내게 잘 어울리지 않는다. 아직은 그럴만한 자격도 없고 그냥 보건관리자의 보조 역할을 하는 것으로도 만족하려고 애쓰고 있고 내가 우리직원의 건강관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수있는 의무실에 몸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행복스럽다. 내게는 직장의 어머니가 두 분 계신다. 한 분은 우리 의무실 의사선생님이시고 또 한분은 간호원이신데 두분 다 나이가 지긋하신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시다.

눈에 보이는 질병을 연구하고 그에 따른 처치와 처방도 중요하지만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대부분이 객지생활인 우리에게 작은거지만 나눠지는 정이란 받는 개개인의 마음에는 얼마나 크게 작용하고 고맙게 느껴지는지 주는 사람 마저도 느끼지 못 할 거라는 생각이다. 작은 정에도 쉽게 물어버리는 아가씨, 청순함이 아직도 물씬 풍기는 예쁜애들, 모두를 포용해 줄 만한 넓은 가슴을 가졌으면 싶다. 우리 회사는 봉제를 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큰 사고는 없는 편이고 거의 대부분의 사고가 바늘

이나 가위에 찢리는 경우가 많다. 언젠가 바늘에 찢린 종업원 하나가 며칠동안 치료를 받고 이제 그만 치료해도 되겠다는 내 말에 고맙다는 말과 함께 내놓는 노랑색 손수건이 왜 그렇게 크게 보이든지 주는 그애와 받는 나는 서로 얼굴이 빨갱게 되었었다. 작은걸 드러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그애 앞에서 나는 또, 받는 내가 부끄러워서 귀까지 빨개지는 것이 얼마나 어색하고, 내심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나는 솔직히 말해서 보건담당자로서 아직 담업무에 미숙하고 또 그것에 관한 지식을 배워가고 있는 중이다. 다만, 의무실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도 모르고 사리돈 하나를 받아가면서 100원짜리 하나를 책상위에 던지듯이 두고 달아나 버리는 예쁜애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조금은 불평 불만이 있더라도 이해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 지는 곳으로서 보건관리를 똑똑히 모르는 나를 채워 가려고 한다.

❖마음이 머무는 길목에서 ⑧❖

是日夜 南草之聲



南草라니까 좀 헛갈리시겠지만, 평소에 익히 아시는 놈이올시다. 여기 남자치고 冠禮 낫살 넘으면 60%가, 婚禮를 치렀다면 90%가 저를 좋아하신다구요. 하긴, 요새 웬만한 찻집에서도 묘령의 여성이 다릴 탁 꼬고 앉아서 질 척 꼬나문다던데요 뭘. 담바고·담바귀·담비·담배에다 妖草·葉草·煙草는 물론이고, 유식끼까지 좀 풍긴다면 卷煙·시거에다 씨가레또까지가 다 제 이름이에요.

이래봐도 전 여기사람들 무척이나도 좋아하는 진짜 외래품이라구요.

제 고향은 아메리카 열대지방이고, 본적이 유럽에다 전주소가 왜국이고, 현주소가 여기 이니까요. 제 친척은 이 세상에 대충 50종, 그중 흡연용으로는 타바쿰과 루스티카가 재배되지만, 근래엔 씹음담배·냄새담배까지 생겼죠. 제게 니코틴같은 유해 알카로이드, CO·NO₂ 등의 유해가스, 발암물질성 타르등이 들어있다고 종종 눈총도 받지만 말예요.